〈지난 9月20日~25日, 6일간 WEC 15차 총회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되었다. 세계에너지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의가 벌어지고 있다〉

제15차 세계에너지회의(WEC) 1992년도 「마드리드」총회 열려

미래세계를 위한 에너지위원회(Energy for Tomorrow's World Commission)의 8개지역 분과위원회가 3년간 수집한 자료분석, 2020年까지의 에너지 需要想定과제등 토의

이번 WEC마드리드 총회에는 한국에서 安秉華 한전사장, 李寬 21세기위원회 위원장, 鄭根謨 아주대 석좌교수등 약 30명의 대표가 참석하였다.

9月20日 개회식에 참석한 「후안 카를로스」 스페인 국왕은 개막식 환영사에서 "생활의 질은 상당부분이 에너지의 이용가능성에 달려있으며, 에너지는 생활의 기본요소인 바, 수용할 만한 조건에서 모든 에너지자원을 획득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의 확대와 새로운 사회·경제제도의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함으로써 WEC총회를 더욱 빛냈다.

나흘간의 총회 본회의에서 11명의 세계적 저명인사가 기조연설에 나섰는데 前미국방부 및 에너지부 장관이었던 슐레진져 박사는 「지정학적 변화와 에너지시장」이라는 주제 연설에서 소련의 위협이 사라지고 걸프전으로 비롯된 극적인 지정학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중동지역을 1차세계대전 직전의 발칸반도에 비유하면서 현재의 석유시장 안정이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고하였다.

그는 에너지시장의 변화에 언급하면서 선진국의 불경기와 소련 및 동구지역의 수요감소가 없었더라면 현재 세계는 에너지공급의 제약으로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전직 미국방부장관의 입장에서 석유시장의 놀라운 변화를 지적하면서 ① OPEC 스스로 힘의 한계를 깨닫게 되었고 ② 조직의 제도적 프로타고니즘의 붕괴(즉, 온건노선을 취하는 사우디가 OPEC의 주도권 행사)등의 변화요인을 들고 난 다음 석유구매자들은 이제 OPEC에 대한 과거의 불확실성과 과민증 대신에 이 두가지를 확신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에너지 2/3 선진국소비에 따가운 눈

「90억 세계인구를 위한 에너지전망」을 주제로 연설에 나선 前인도 환경장관 「간디」여사는 에너지의 2/3를 전세계인구의 5분의 1도 안되는 선진국에서 소비

우리나라 安秉華(에너지協회장) 李寬(21세기委위원장) 鄭根謨(亞洲大석좌교수) 文熙晟(前가스公사장)등 약30명 참석/우리나라 4개논문 채택, 논문집 수록

세계에너지회의(World Energy Council ; WEC) 제15차총회(Congress)가 지난 9월20일부터 6일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총회에는 30여명의 에너지각료를 포함하여 정부, 연구기관, 대학, 업계, 국제기구등의 에너지관련 저명인사 또는 고위층등 약 5,000여명이 참석하여 정기적인 에너지관련 국제회의로서는 최대규모임을 자랑하였다.

개발도상국 에너지수요 2020年('90년기준)까지
표준형 140%증가
고도성장형 250% 증가
환경중시형 110% 증가

1998年大會 미국 휴스턴決定, 1995年大會는 東京개최

옛소련, 東歐의 原電安全性확보, 자금지원등 논란벌여

하고있는 에너지낭비구조에 대해 시정을 촉구하였다.

간디여사는 선진국을 향해서 「시간당 1,700명의 사람이 죽어가는 대량 아사상태와 수백만명이 과소비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현상을 대수롭지않게 여기는 사회의 공존이 어떻게 가능한가」 라고 비난조의 질문을 던지면서 그녀는 서독이나 스웨덴이 연간 1인당 200갤런 미만의 휘발유를 소비하는데 연간 400갤런이나 소비하고 있는 미국의 휘발유 과소비를 강력히 비난하고 과소비에 대한 휘발유세 적용을 적극 지지하였다.

또한 개도국의 에너지계획 수립시 환경문제를 염두에 둘것을 요청하는 선진국의 주장은 富의 위선이라고 주장하고 빈국들에 있어서 온실효과에 대한 대응이란 개발목표를 위협하는 것이며 아직은 사치일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지구환경기금설립 IMF역할수행

「골뎀버그」 브라질 교육부장관(과학기술장관, 환경장관등 역임)은 「잠재적인 기후변화와 그 실제」를 연제로한 기조연설에서 「反온실가스규범」을 마련하여 「지구환경기금」(GEF)으로 하여금 환경분야의 IMF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개도국개발 지원위해
풍부, 안전, 값싼 에너지.
금융시장구조개선 포함
세계적 규모의 에너지
수급구조 개혁해야

그는 온실효과의 55%는 CO_2에 의해 발생되고, CO_2방출은 평범한 시나리오를 따르더라도 향후 30~40년 이내에 지금의 2배가 될것이며, CO_2의 50%증가는 대기(surface)온도를 1.5~4.5℃ 상승시키게 되므로 기후변화의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를 줄이거나 피하기위해서는 앞으로 수십년간 CO_2등 온실효과 발생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CO_2배출을 줄이는 두가지 방안을 제시한 그는 ① 급격한 에너지가격인상으로 에너지사용을 줄이는 방법과 ② 환경보호를 유도하는 정책과 기술개발을 위한 국제기구의 채택을 들었는데 전자는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려움으로 GEF의 채택과 같은 후자를 권고했다.

이번총회 역시 기술프로그램으로 기조연설, 논문발표, 패널디스커션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나 전반적인 내용의 흐름을 WEC가 지난 3년간 중점추진해온 「미래세계를 위한 에너지위원회」(Energy for Tomorrow's World Commission)의 연구결과에 접목시키고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갔다.

ETW위원회종합보고 선진국 에너지증가없이도 발전가능

「아게르한센」 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이 위원회의 8개지역보고서를 토대로 작